

위암에서 복강경 보조 원위부 위절제술의 학습곡선 극복 전후의 비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외과

최유신, 김형호, 박도중, 이택구

(목적) 위암에서 복강경 보조 원위부 위절제술과 개복 위절제술을 비교한 연구는 다수 보고되고 있으나, 단일 술자에 의한 LADG의 학습곡선 극복 전후의 결과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학습곡선 극복의 시기와 극복 전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동아대학교 병원 외과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외과에서 위암으로 단일 술자에 의해 복강경 보조 원위부 위절제술을 시행 받은 206명의 환자 중 위절제술을 시행 받은 23명을 제외한 18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시간의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인 시기를 학습곡선을 극복한 시점으로 하여 학습곡선 극복 전후의 수술과 관련한 사항들 및 병리학적 특성 그리고 수술 후 임상적 결과를 전향적으로 구축된 자료를 근거하여 후행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시행예의 62번째 근처에서 수술 시간의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여 이를 학습곡선 극복시점으로 정하였다. 극복 전후 대상 환자의 연령, 체질량 지수 및 수술 후 식이를 진행한 시기의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수술 시간(250.5 vs. 157.1분), 병변으로부터 절제연의 근위부와 원위부까지의 거리(4.28 vs. 6.31, 4.28 vs. 6.97 cm) 그리고 절제된 림프절의 수와 이 중 양성인 림프절의 수(20.58 vs. 33.7, 0.34 vs. 1.56개)는 극복 전후 시기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수술 후 2일째 시행한 백혈구 수($12,377$ vs. $9,476/\text{mm}^3$), 재원기간(10.97 vs. 7.83일), 수술 중 및 후의 수혈 여부(19/62 vs. 4/121) 그리고 주요 합병증의 발생 여부(5/62 vs. 1/121)도 극복 전후 시기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결론) 복강경 보조 원위부 위절제술의 학습곡선의 극복으로 수술 시간 및 재원기간의 단축, 수술 후 염증반응의 경감, 좀더 충분한 절제연과의 간격 확보, 적은 출혈 그리고 합병증의 감소 등의 장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학습곡선 극복으로 복강경 보조 원위부 위절제술은 환자에게는 좀더 안전한 술식이, 외과의사에게는 덜 부담이 되는 술식이 되리라 사료된다.